

"여성희망캠페인'은 계속돼야 한다"

[프레스이안-여성재단 공동캠페인·9·끝]"경제적 평등 보장돼야"

등록일자 : 2007년 05 월 31 일 (목) 09 : 25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공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중심의 탈공업사회로의 구조적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더 이상 남성위주 또는 강자위주의 논리로는 총체적인 위기극복은 물론 지구적인 무한 경쟁시대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극명해졌다.

이 시점에 딸들에게 희망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태어난 한국여성재단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일은 오늘의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단절을 풀어내고자 대치상황 사이의 벽은 헐고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그 일을 선진국에서처럼 '필랜스러피(Philanthropy)'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필랜스러피란 일반적으로 박애, 자선행위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발현으로서의 행위를 뜻하며 서로간의 사회심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상호부조의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또는 재단 등의 공익법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여성재단과 파트너 단체인 400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여성재단은 해마다 5월을 '여성희망캠페인'의 달로 정하고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한 집중모금활동을 전개한다. 올해의 화두는 '여성의 빈곤화 해소'다. 세상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과 불이익 감수를 강제하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여성계의 관심사는 경제적 평등으로 승계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성이 빈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21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성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